용인시, 환경부 주관 첫 '환경교육도시' 최종 선정

2025년 9월까지 환경교육 활성화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이상일 시장 "110만 용인시민 협력 성과… 프로그램 개발"

용인특례시는 우수한 환경교육 성과로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우수한 환경교육 성과로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선정,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시범도시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1월 관련법이 개정·시행된 후 정식으로 시행한 첫 결정이다. 지정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다.

이번 선정과정에서 용인시는 ▲환경교육도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계획의 적정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 3개 평가항목 16개 평가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구체적으로 환경교육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제1차 용인시 환경교육계획(2021~2025)을 수립해 ▲환경교육도시 기반마련(환경교육 조례 제정,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추진 등)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교육과정 연계 초등 5학년 대상 환경교육 등) ▲사회 환경교육 강화(용인형 지역연계, 시민 활동가 역량 강화) ▲환경교육 협력 강화(학교-사회 협력 기반 마련)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회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23년에는 수지구 죽전동에 탄천환경교육센터를 개관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 보전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도록 시민환경교육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현판과 함께 환경 교육 교재나 교육내용 개발·보급과 지역 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환경부의 첫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용인교육지원청은 물론 환경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110만 용인시민의 협력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고유의 생태자산을 활용한 용인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를 비롯한 서울시 도봉구, 충남 서산시, 경기 안산시 등이 환경교육도시로 함께 선정됐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

용인=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9월 30일 NC백화점 수원터미널점 앞 광장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수원시 사회적경제 오픈마켓 썸(SSEOM)'. 수원시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로개척 위한… 수원도시재단 주관 오픈마켓 썸 운영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권선구 NC백화점 수원터미널점 앞 광장에서 '2022년 제2차 수원시 사회적경제 오픈마켓 썸(SSEOM, Suwon Social Economy Open Market)'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 구매 촉진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칭하며 수원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50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원지역 18개 사회적경제기업(한국팜머스협동조합·꿈틀협동조합 등)이 생산한 가죽 수공예품, 비누, 벽시계, 커피·과자, 수원시 공식 캐릭터 '수원이' 제품 등 80여 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준 NC수원터미널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형 점포와의 상생 협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경제 오픈마켓 썸(SSEOM) 3차 행사는 11월 중에 영통구 아브뉴프랑 광교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1차 행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진행했다.

수원=김두일 기자

궂은 비바람도 못말린… 지역 축제서 가을에 물들다

소래포구 축제·고양가을꽃축제 등 가족 행락객들 몰려
초여름 날씨 보인 부산·제주 바닷가선 해수욕 인파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오락가락 내린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시민들은 궂은 날씨에도 지역 축제를 즐기거나 산행에 나서며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수도권 해양·가을꽃 행사장, 가을비에도 '활기'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는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인 소래포구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려 가족 단위 행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축제 참가자들은 꽃게 잡기, 대하 맨 손 잡기 등 체험행사를 즐기거나 친환경 제품 전시 부스 등을 둘러봤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는 나들이객들이 중식당에서 자장면 등을 먹거나 길거리 상점을 구경하며 이국적인 정취를 만끽했다.

핑크뮬리 축제가 열린 경기 포천시 허브아일랜드에도 관광객과 시민 1천여 명이 몰렸다.

분홍빛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핑크 뮬리 밭 한가운데서 방문객들은 비가 내리는데도 기념사진을 찍으며 연휴 마지막 날을 즐겼다.

1일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개막한 '2022고양가을꽃축제' 행사장에도 이날 정오까지 2만 5천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았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고양가을꽃축제에는 고양꽃전시관 전면 광장, 주제광장, 한울광장, 달맞이섬 월파정 그리고 선인장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고양시 선인장 전시관에 100만송이의 국화꽃 등이 전시돼 있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까지 5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북부 대표 안보 관광지인 파주 임진각에는 이날 정오까지 1천8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평화누리공원을 거닐거나 임진각 곤돌라를 타며 즐거운 휴일을 보냈다.

지역별 특산품 축제장 향한 관광객들

경북 영주 풍기인삼문화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엑스포'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 전시물을 관람하고, 특산물을 맛봤다.

전북 김제 벽골제 지평선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메뚜기 잡기, 벼 베기, 수레 타기 등의 체험행사를 즐겼으며, 정읍시 산내면에 조성된 10만여㎡의 구절초축제장에도 방문객들이 구절초의 은은한 색과 향을 만끽했다.

대하 축제가 한창인 충남 태안 안면도 백사장항 일대와 전어·대하 축제가 이어진 보령 무창포항 일대는 빗속에도 싱싱한 제철 수산물을 즐기려는 미식가들로 붐볐다.

지난 2일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에서 열린 '제4회 인제 가을꽃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인제=연합뉴스

금산 인삼축제장과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제 축제장에도 많은 주민이 찾아와 막바지 연휴를 즐겼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심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웰니스 관광' 페스타가 열렸다. 방문객들은 음악 테라피 명상과 온천 체험, 요가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관광과 힐링을 동시에 즐겼다.

경남 창원시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에는 부모 손을 잡고 따라나선 어린아이들이 각종 놀이기구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는 고성군 행사장 일원에서는 퍼레이드와 마술, 저글링, 마임 공연 등이 진행돼 어린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초여름 날씨' 제주·부산선 서핑…등산객 이어져

초여름 날씨를 보인 제주 및 남부지역 해안가에선 해수욕을 즐기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제주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함덕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에는 관광객들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거나 그늘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늦더위를 식혔다.

낮 기온 27도를 넘긴 부산 송정해수욕장에는 100명 내외의 서퍼들이 하얀 파도를 시원하게 가르며 서핑을 즐겼다.

지난 1일 정식으로 개장한 부산항대교 아래 '마리노 오토캠핑장'에서는 가족 단위 캠퍼들이 부산항 경치를 배경 삼아 먹고 마시며 저물어가는 연휴의 아쉬움을 달랬다. 제법 굵은 빗줄기와 바람도 등산객의 행렬은 막지 못했다.

계룡산국립공원에는 비가 오고 강한 바람이 부는 데도 오전에만 1천500여 명의 등산객이 찾아 가을 산행을 즐겼다.

연합뉴스

메타버스 리딩 기업 CEO가 말하는 메타버스 비즈니스의 모든 것!

인간과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그 속에서 상호 융합 및 공진화하게 될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 지금까지 계속 관망만 해 왔다면,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될 메타버스에 과감히 탑승하길 바란다. 앞으로 AR·VR 등 XR 기반의 기업들과 AI, 블록체인 기업들이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메타버스 기술 개발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시장은 2020년 50조 원, 2023년 535조 원 이상, 2030년에는 1,700조 원가량 성장할 전망이며,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2.6조 원의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하지만 문화와 IT 기술, 콘텐츠 강국인 대한민국이 그 주인공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에 나도 함께할 것이다.

(주)오썸피아 민문호 대표의 감각과 노하우가 담긴 책으로 초연결 시대의 메타버스를 미리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_VR콘텐츠산업협회 회장 홍철운

이 책은 메타버스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이슈까지 확장하여 진정한 메타버스 세상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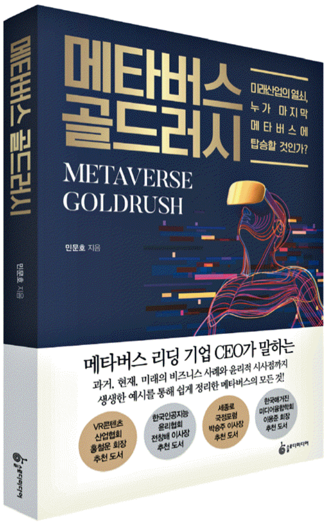
_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전창배

메타버스 비즈니스 CEO가 전하는 <메타버스 골드러시> 를 통해 도래하는 메타버스 시대를 미리 경험해 보자.

_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박승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메타버스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민문호 님이 비로소 제대로 된 메타버스 전문서를 출간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_한국매거진미디어융합학회 회장 이용준



미래의 인재들이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메타버스 비즈니스 바이블!

"다가올 메타버스 세상에서 나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 골드러시 누가 마지막 메타버스에 탑승할 것인가?

PART 1: METAVERSE IS COMING 현재와 메타버스
PART 2: METAVERSE ARCHIVE 과거와 메타버스
PART 3: METABARS OF THE FUTURE 미래와 메타버스
PART 4: 급부상하는 메타버스 비즈니스의 모든 것
PART 5: 메타버스의 윤리적 이슈와 공존

과거, 현재, 미래의 비즈니스 사례와 윤리적 시사점까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달팽이. 슬로디미디어에서 다양한 자기계발&경제경영서를 만나보세요 슬로디미디어